

투데이 칼럼

2022년 탈북민 대안학교

우리나라엔 탈북민 2세들을 위한 여러 대안학교들이 있다. 이 땅에서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특화된 교육을 하는 학교들이다. 이 중에는 '남북사랑 초등학교'가 있다.

지난 2022년 이 학교에 특별한 변화가 생겼다고 한다. 원래는 중고등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였는데 올해 초등과정도 개설된 것이다. 특히 처음으로 탈북민 교사가 부임하는 등 지난 1년 동안 적잖은 변화가 생겼다.

지난 해 크리스마스 때 이 학교에서는 또 다른 분위기가 있었다. 초등생들이 크리스마스 축하 무대를 꾸민다고 한 달 전부터 합창 연습을 열심히 해왔다.

처음 맞는 크리스마스 행사에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더욱이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곳은 중국어 수업이 한창인 강의실도 있다. 학생들이 중국어로 자기소개를 해본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함께 모여 중국어를 정식 교과목으로 듣고 있다. 대부분 부모가 중국인과 탈북민인 다문화 가정, 탈북민 2세 아이들이다.

엄마 아빠와 막힘없이 얘기하려면 중국어가 꼭 필요한 것이다. 개교 7년째인 지난해 이 학교에는 큰 변화들이 생기고 있다. 남북사랑



정복규  
논설위원

학교는 2016년 탈북민 대안학교로 첫발을 내디뎠다.

탈북 청소년의 한국 정착을 돕기 위해 중고등 과정으로 시작했고, 점진고사반과 대입반 등을 운영해 왔다.

이런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탈북 가정의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세심하게 돌보기 위해 지난해 초등과정을 새롭게 개설했다. 여기에서 지난해부터는 한국 어린이도 입학했다.

중·고등 과정의 탈북 청소년들을 2년 정도 가르쳐 보면 어린이들에게 정체성 혼란이 있는 경우가 많고 부모와 같듯이 있는 아이들도 많다. 남북통합교육을 하려면 어린나이에 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은 것이다.

현재 초등학생은 모두 11명이다. 중국인 부모를 둔 아이와 남한 가정의 아이, 그리고 엄마는 탈북민, 아

빠는 중국인인 아이가 한데 어울려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구성원이 다 체류다 보니 국어 시간 풍경도 여는 교실과 다르다.

그리고 이 학교가 맞이한 또 하나의 변화, 바로 선생님이다. 지난해 시작한 초등학급의 담임을 맡은 어느 교사가 그 주인공이다. 그는 '남북사랑학교'의 첫 탈북민 교사이다.

남북사랑학교 교장은 "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고 또 정서에 맞고 친근하게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필요했어요. 저도 추천을 했고 다른 분들도 추천을 해서 남북사랑학교 제1호 탈북민 교사가 탄생했습니다."라고 말한다.

2013년 한국에 온 뒤 사회복지를 전공한 교사는 교사의 길을 걷게 됐다. "교사의 엄마가 되고 싶다"는 그의 바람은 2009년 탈북 뒤 중국에서 겪은 가슴 아픈 사연에서 비롯됐다.

남북사랑학교 제1호 탈북민 교사인 그는 "저도 인신매매로 농촌에 팔려갔고요. 거기서 2년 반 동안 살게 됐던 거 같아요.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도 있고요. 지금 중국에 있고 13살이 됐어요"라고 말했다.

중국에 두고 온 세 살배기 딸은 어느덧 10대 소녀가 됐지만 엄마 역할을 제대로 못 해줬다는 회한은 10년 가까이 안쓰러움으로 자리 잡았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학교 학생들은 설레는 발걸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한 달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 크리스마스 축하 공연을 위해 전 학년이 합창 연습을 했다. 서로 다른 언어도, 성장 배경도, 벽이 되지 않았다.

처음으로 함께 보내는 크리스마스는 아이에게도 선생님에게도 따뜻하기만 하다. 이런 훈훈한 자리엔 또, 선물도 빠질 수 없다. 들뜬 마음으로 연 상자엔 멋진 간식이 한가득 들었다. 뽕은 춤지만 교실엔 온기가 가득하다.

남북사랑학교 제1호 탈북민 교사는 "여기 안에서 작은 통일을 이미 경험하면서 실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누군가를 품으려는 그 마음이 놀랍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그런 거 같아요. 이 아이들이야말로 미래에 좀 더 편견 없이 포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라 생각해요."라고 말한다.

사설

국가가 포기한 취약계층

사회가 발견 못 하고 내버려둔 취약 계층 문제가 여전하다. 단지, 연락이 닿지 않아서 정부 지원에서 빠진 사람만 전국에 5천 명이 넘는다.

경기도 수원, 어느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골목에서는 지난 8월, 60대 어머니와 40대 두 딸이 세상을 떠났다. 치료가 힘든 병, 사업 실패로 떠안은 빚까지 감당할 수 없는 생활고의 '수원 세 모녀'였다.

마지막 길도 쓸쓸하게 떠나게 됐다. 가족의 시신을 인도받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기간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자, 지자체에서 실태 파악에 나서긴 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로 이어지지 못했다.

단전, 단수 등 생활상 '위기 징후'가 포착된 가구는 올 한 해만 93만여 명에 이른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가 지원에서 배제한 사람이 5천 백여 명에 이른다. 80대 노모를 모시고 살던 58

살 김 모 씨, 지난 5월 정부의 '위기가구' 명단에 올랐다. 건강보험료, 관리비 체납 등의 전형적인 '징후'가 포착됐다. 지자체는 현장 조사에서 노모를 직접 만나기까지 했고, 아들 김 씨의 연락처도 확보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은 얼마 안 가 이 집을 '연락두절'로 분류하더니, 끝내 복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세대주로부터 '회신'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는데, 그사이 김 씨는 뇌출혈로 쓰러져 숨졌다.

한정된 인력으로 대상자들을 일일이 탄탄대는 보장이 없다. 효율적인 소재지 파악을 위해 선 통신·금융 자료 등의 개인 정보 조회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걸 뒷받침할 제도나 법 정비는 아직까지 이뤄진 것이 없다. 지금도 못 먹고 열병은 자들이 많다. 발견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

우여곡절 끝에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지난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전라북도도 호남을 벗어나 독자적인 권역을 구축하는 과정의 첫발을 떼게 됐다.

법이 제정되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었다. 전북만의 고도의 자치 권한 보장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은 다른 시도의 견제 속에 처음 발의한 지 8개월 만에 정기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이후 여야 대치의 불똥이 전북특별자치도법안에 튀었고, 연내 국회 통과가 무산되는가 싶었다. 국회에 계류된 지 20일 만에 법사위 심의를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앞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 뒤 시행된다. 이번 쾌거는 여야 정치권이 한 팀으로 뭉쳐 지방 정부와 협치한 결과로 평가된다.

정운천 국회의원은 "첫 단추를 끼웠고 앞으로 짧은 시간 안에 협치의 성과물이 결과적

으로 꼭 나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향후 전북특별자치도가 본격 출범하면 우선 명칭부터 전북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뀐다. 독자적 지위의 행정 체계 개편으로 행정상·재정상 특별 지원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지방 이양으로 전북만의 별도 계정이 설치돼 안정적인 재정 조달도 가능하다. 또 지원위원회가 설치되면 중앙 부처와 협의와 조율도 쉬워진다.

독립적인 감사 기구 운영으로 내부 자체 감사를 강화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이 밖에도 주민투표 기준 완화 등 주민 참여 기회 확대와 지역 인재 선발과 임용 과정의 인사 자치권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본격 시행까지 아직 적잖은 시간과 절차가 남은 만큼, 실질적인 분권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사설로 보는 지구촌 소식

가방의 바다에 빠진 여행객



2022년 12월 29일(현지시간) 미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국제공항 수하물 찾는 곳에서 한 여행객이 수많은 가방 사이를 헤매고 있다.

러시아군 공습으로 파괴된 집 정리하는 구조대



2022년 12월 2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긴급 구조대가 러시아군의 로켓 공격으로 파괴된 집 잔해를 정리하며 수색하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